

배포일시	2010. 10. 25.(월) 11:00 (총 9매)	보도시점	즉시
담당부서	부산지방기상청 기후과	담당자	과장 조진태 장기예보관 박인태
		전화번호	051-718-0423

11월 기상특성과 기상재해(부산·울산·경남)
- 큰 일교차, 건강관리 및 농작물 첫서리·첫얼음 피해 주의 -

□ **11월의 기상특성**

-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찬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시작함.
- 해안지방에서도 첫서리가 내리고 첫얼음이 얼기도 하며, 농작물에 냉해를 입히기도 함.
- 복사냉각의 영향을 받아 진주, 합천, 산청, 거창, 함안, 밀양, 창녕 등 강과 호수를 끼고 있는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많이 나타남.
- 하순 경 거창, 산청 등 고지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첫눈이 내리는 시기임.
- 찬 대륙고기압이 발달하는 시기로 기압경도가 커져 육상에서는 강풍이 불고,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아짐.

□ **11월의 대표적 기상재해(평년)**

- **한파**
11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오므로 건강관리와 농작물이 어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작물관리에 주의 필요
- **안개**
11월에도 복사냉각으로 인한 안개가 댐과 강이 흐르는 진주, 합천, 산청, 거창, 함안, 밀양, 창녕 등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자주 발생하므로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함.
- **풍랑**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동해에서는 북동기류에 의한 풍랑이 강해지는 시기임. 찬 대륙고기압이 동해상으로 확장하면서 북동풍이 발달하여 동해안으로 유입되며, 해상에서는 점차 물결이 높아짐. 또한 동해안의 대게잡이 어선 등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로 높은 물결에 의한 선박사고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시기임.

※ 첨부 : 11월 기상재해 정보 1부.
※ 문의 : ☎ 051-718-0423, <http://www.kma.go.kr>

[첨부]

11월 기상특성과 재해정보(부산·울산·경남)

- 건강관리 및 농작물 첫서리·첫얼음 피해 주의 -

부 산 지 방 기 상 청

2010년 10월 25일 11시 발표

□ 11월의 기상특성

-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찬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시작함.
- 해안지방에서도 첫서리가 내리고 첫얼음이 얼기도 하며, 농작물에 냉해를 입히기도 함.
- 복사냉각의 영향을 받아 진주, 합천, 산청, 거창, 함안, 밀양, 창녕 등 강과 호수를 끼고 있는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많이 나타남.
- 하순 경 거창, 산청 등 고지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첫눈이 내리는 시기임.
- 찬 대륙고기압이 발달하는 시기로 기압경도가 커져 육상에서는 강풍이 불고,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아짐.

□ 11월의 대표적 기상재해(평년)

○ 한파

11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오므로 건강관리와 농작물이 어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작물관리에 주의 필요

○ 안개

11월에도 복사냉각으로 인한 안개가 댐과 강이 흐르는 진주, 합천, 산청, 거창, 함안, 밀양, 창녕 등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자주 발생하므로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함.

표3. 최근 10년 안개일수

지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울산	0	0	2	5	8	7	8	0	1	4	2	0	37
창원	1	1	3	2	9	7	5	0	0	3	1	0	32
부산	0	1	1	12	20	26	35	1	0	1	0	0	97
통영	2	4	7	15	24	38	75	12	8	6	1	0	192
진주	19	16	41	35	66	62	57	40	65	99	82	23	605
거창	3	2	4	2	6	5	7	7	12	24	25	7	104
합천	19	11	14	13	33	33	65	48	50	87	75	22	470
밀양	2	2	0	1	1	3	3	0	0	3	0	0	15
산청	2	4	2	7	19	15	15	19	45	40	14	4	186
거제	1	2	1	5	3	3	4	0	1	2	1	0	23
남해	1	1	1	1	3	3	5	2	4	0	1	0	22
합계	50	44	76	98	192	202	279	129	186	269	202	56	1783

○ 풍랑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동해에서는 북동기류에 의한 풍랑이 강해지는 시기임. 찬 대륙고기압이 동해상으로 확장하면서 북동풍이 발달하여 동해안으로 유입되며, 해상에서는 점차 물결이 높아짐. 또한 동해안의 대게잡이 어선 등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로 높은 물결에 의한 선박사고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시기임.

※ 붙임 : 11월의 지역별 기상자료(평년) 및 재해 자료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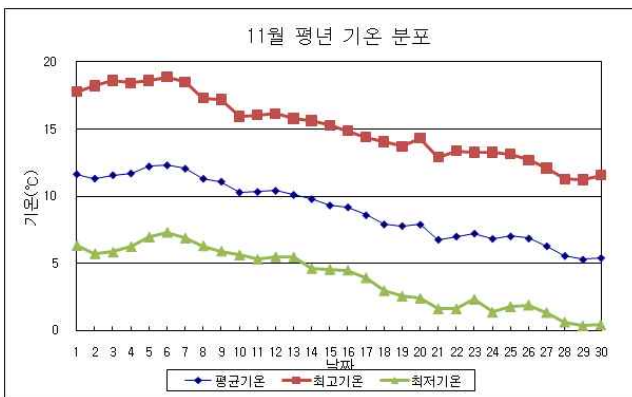
11월의 지역별 기상자료(평년) 및 재해 자료

부산지방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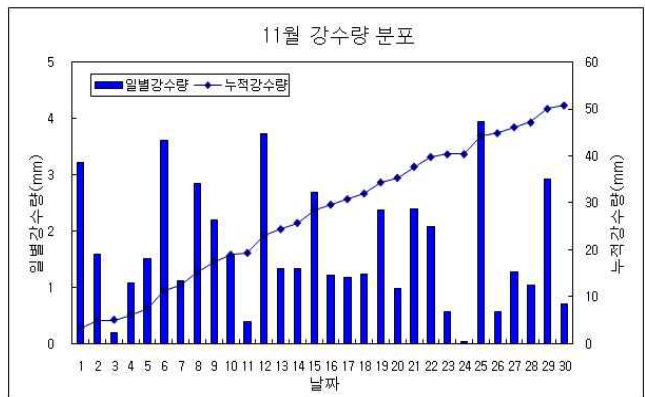
1. 11월 지역별 기온 및 강수량(평년)

단위 : 기온 °C, 강수량 mm

지 점	울산	창원	부산	통영	진주	거창	합천	밀양	산청	거제	남해
평균기온	9.6	11.0	11.3	11.0	7.9	6.0	7.2	8.0	7.5	10.0	9.9
최고기온	15.5	15.9	16.1	15.7	15.1	13.5	14.7	15.3	14.6	15.0	15.3
최저기온	4.8	6.7	7.6	7.0	2.0	-0.2	1.5	1.8	1.9	5.1	5.1
강 수 량	50.7	52.2	60.1	54.8	48.8	41.5	38.9	43.0	43.8	63.6	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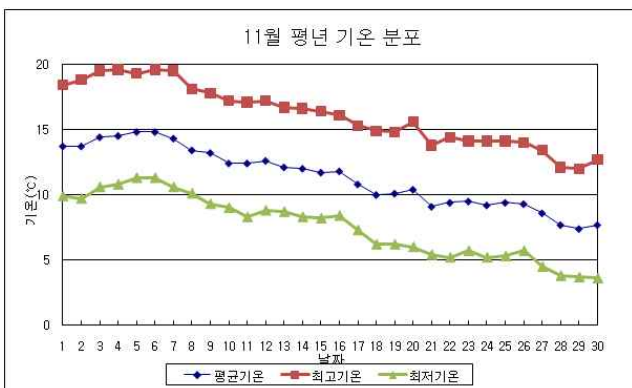
부산·울산·경남 11월 일별 평년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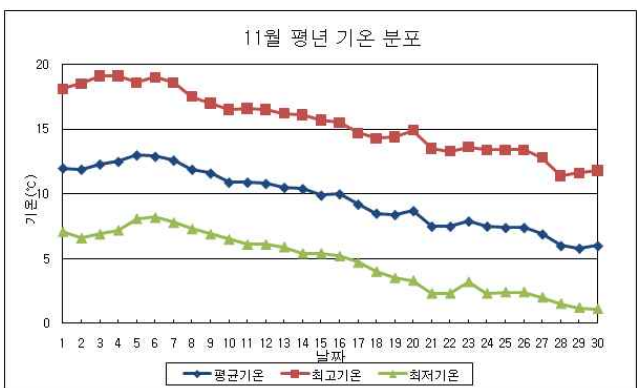
부산·울산·경남 11월 평년 강수량

2. 부산·울산·경남 주요도시 평년기온(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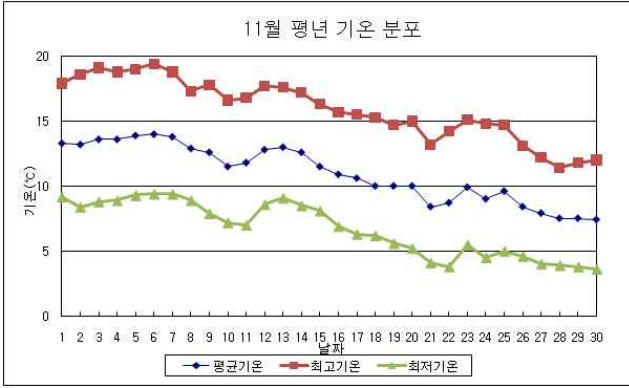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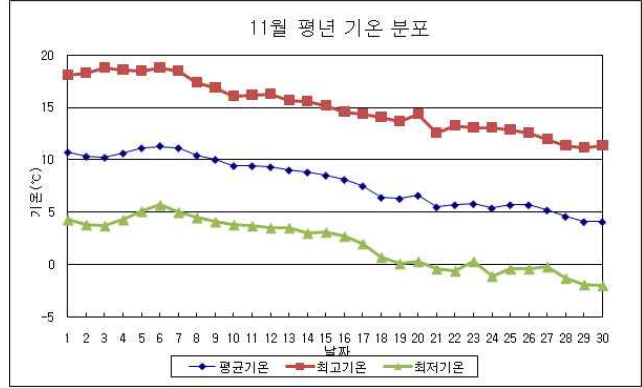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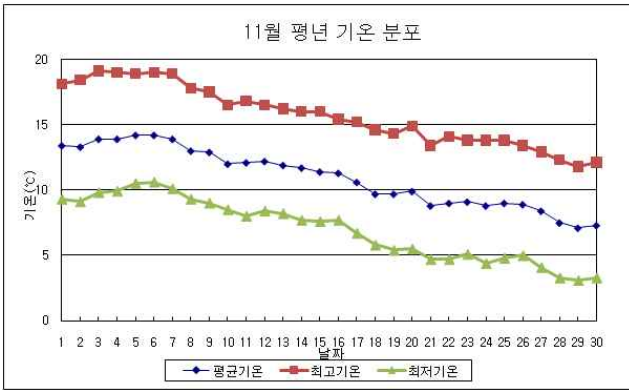
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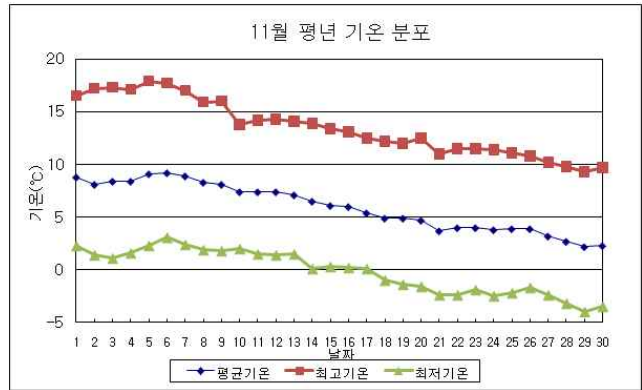
진주



통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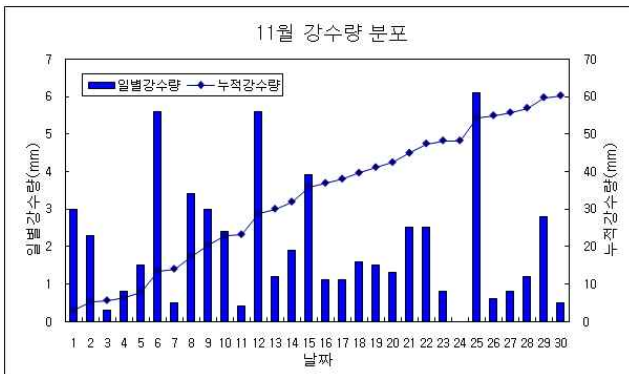


거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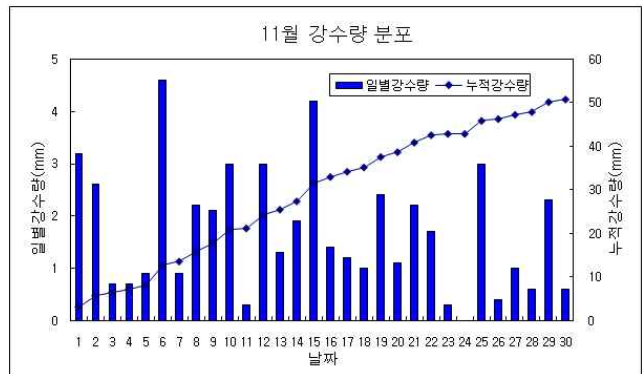


3. 부산·울산·경남 주요도시 평년 강수량(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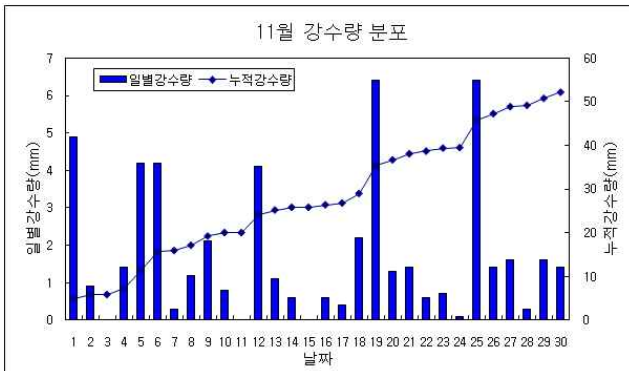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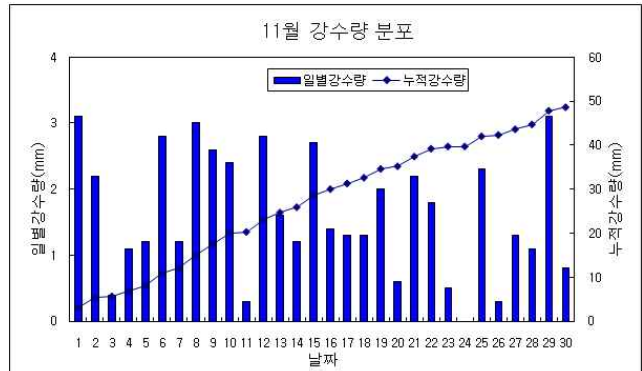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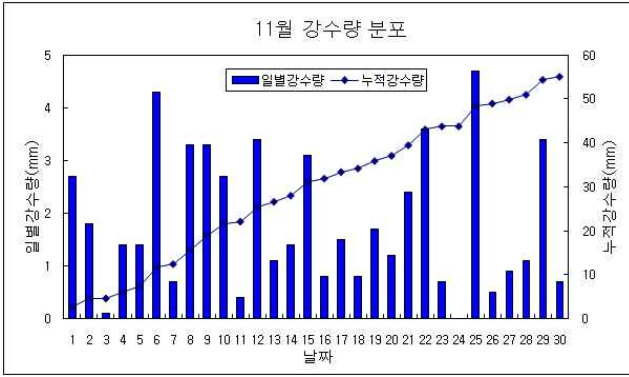
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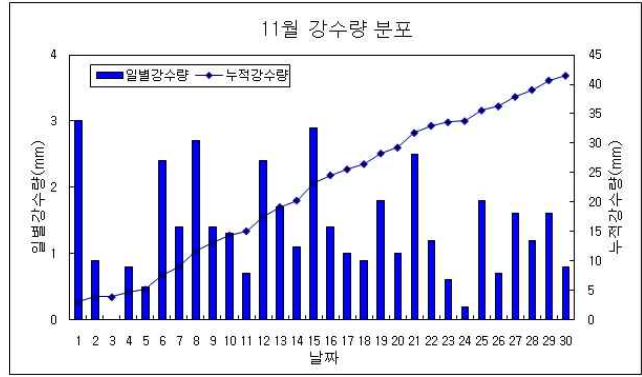
진주



통영



거창



4. 부산·울산·경남 주요도시 순별 평년값(11월)

○ 평균기온

단위 : °C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	거창
11월 상순	11.4	13.9	12.2	13.2	10.5	13.5	8.5
11월 중순	8.9	11.4	9.7	11.3	8.0	11.1	6.1
11월 하순	6.2	8.7	7.0	8.4	5.2	8.4	3.4
평 균	8.8	11.3	9.6	11.0	7.9	11.0	6.0

○ 최고기온

단위 : °C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	거창
11월 상순	17.9	18.8	18.2	18.3	18.0	18.3	16.6
11월 중순	14.9	16.1	15.5	16.2	15.0	15.6	13.2
11월 하순	12.4	13.5	12.8	13.3	12.4	13.1	10.6
평 균	15.1	16.1	15.5	15.9	15.1	15.7	13.5

○ 최저기온

단위 : °C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	거창
11월 상순	6.1	10.3	7.3	8.7	4.4	9.6	2.0
11월 중순	3.9	7.6	4.9	7.1	2.3	7.1	0.1
11월 하순	1.0	4.8	2.1	4.3	-0.8	4.3	-2.6
평 균	3.7	7.6	4.8	6.70	2.0	7.0	-0.2

○ 강수량

단위 :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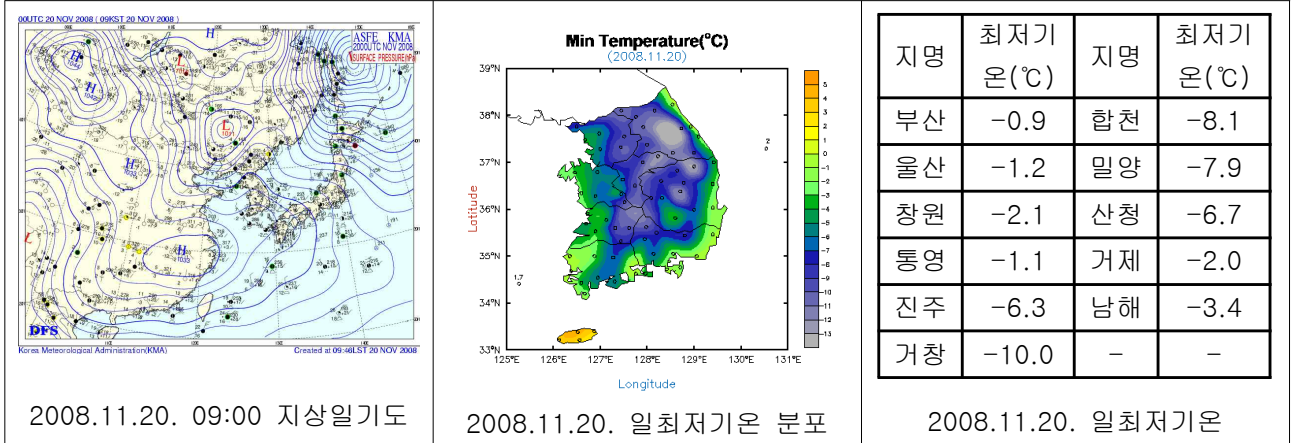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	거창
11월 상순	18.8	22.7	20.8	20.0	20.1	21.6	14.5
11월 중순	16.4	19.5	17.8	16.6	15.3	15.3	15.0
11월 하순	15.5	17.9	12.1	15.7	13.4	17.9	12.0
합 계	50.7	60.1	50.7	52.3	48.8	54.8	41.5

(평년기간 : 1971 ~ 2000년)

5. 기상재해 사례

□ 한파(2008년 11월 20일)

우리나라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남서부내륙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복사냉각을 받아 거창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10.0°C 까지 하강하는 등 평년보다 $5\sim 8^{\circ}\text{C}$ 낮은 추운 날씨를 보였음.



○ 부산·울산·경남지방 11월 최저기온 최저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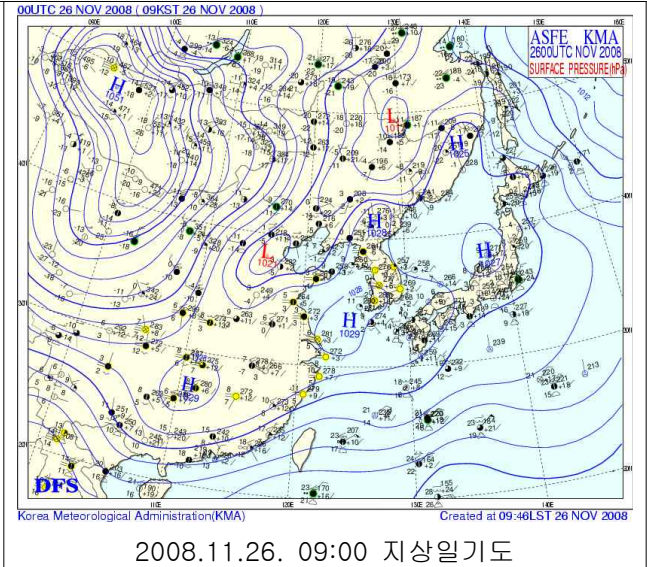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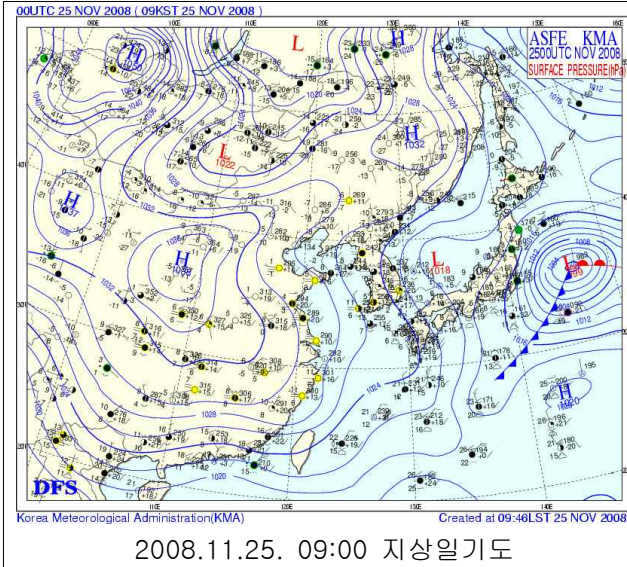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창원	1992.11.27	-3.2	1993.11.24	-2.9	2007.11.19	-2.3	1987.11.30	-2.3	2008.11.20	-2.1
거창	1992.11.27	-11.0	2008.11.20	-10.0	1979.11.24	-9.9	1995.11.28	-9.8	1973.11.29	-9.6
합천	1992.11.27	-9.9	1987.11.30	-8.8	2008.11.20	-8.1	1986.11.30	-8.0	1979.11.24	-7.9
밀양	1979.11.24	-8.1	2008.11.20	-7.9	1992.11.27	-7.7	1986.11.30	-7.5	1973.11.29	-7.5

○ 한파 관련 기사

<p>오늘 더 춥다 부산 아침 기온 0도…20일 오후부터 풀려</p> <p>19일과 20일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다 기상청은 찬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19~20일 부산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 은 함안이 19일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19~20일 아침 최저기온이 대부분 영하권 맹물 것으로 예상했다.</p> <p>18일 아침 부산지역은 최저기온이 1.8도까지 내려갔다. 이는 전날 8.7도에서 6.9도나 떨어 진 것이며, 평년기온(6.2도)보다도 훨씬 낮 수치다. 특히 초속 17.3m의 강풍이 몰아쳐 이날 오전 7시 부산지역 체감온도는 영하 1.2도 로 한겨울 날씨를 방불케 했다. 경남은 산청이 영하 0.7도, 거창은 영하 3.3도까지 떨어졌 다.</p> <p>겨울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시민들은 장롱 속에 걸어뒀던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고 동네 각 의원에는 호흡기 환자들이 평소보다 30%가량 늘었다. 기상청은 추운 날씨가 20일 오전 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차차 풀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5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 으로 전망했다.</p> <p>김희국 기자 입력: 2008.11.18 21:21 / 수정: 2008.11.19 오후 4:09:44</p>	<p>[사진] 종려나무 겨울옷 입어요</p> <p>2008년 11월 20일 (목) 김홍현 기자 kimh@sdomin.com</p> <p>19일 한파로 기온이 폭 떨어지자 진주시가 올해 가로수로 심은 종려나무의 동해를 막으려고 부직포와 녹화 미대로 싸매고 있다.</p>
<p>2008. 11. 19. 국제신문</p>	<p>2008. 11. 20. 경남도민일보</p>

□ 안개(2008년 11월 24일 ~ 28일)

부산·울산·경남지방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안정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받으면서 밤부터 새벽사이에 복사냉각으로 인한 안개가 경남내륙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남. 김해공항에서는 1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지연되었음. 해상에서도 해무가 발생하여 조업에 차질을 빚었음.



○ 2008. 11. 24~28. 진주, 거창 일별 최저 시정(視程)

지점	2008. 11. 24	2008. 11. 25	2008. 11. 26	2008. 11. 27	2008. 11. 28
진주	0.2km 이하	0.1km 이하	0.1km 이하	0.5km 이하	0.5km 이하
거창	0.5km 이하	0.2km 이하	0.1km 이하	0.2km 이하	0.1km 이하

○ 안개 관련 기사

안개로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 차질

기상악화로 25일 오전 김해공항에 이착륙 예정이던 항공기의 결항이 잇따랐다.

25일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김해공항 상공의 짙은 안개로 이날 오전 7시 김해공항발, 김포행 대한항공 KE 1101편과 오전 7시55분 김포공항발, 김해공항행 대한항공 KE 1100편이 잇따라 결항됐다.

이외에도 마닐라를 출발해 오전 8시5분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OZ 706편이 인천공항으로 회항하고 오전 8시46분 김해공항에서 중국 상하이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 875편이 1시간 가량 출발이 지연되는 등 총 10여편의 항공기가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상공에 짙은 안개가 낮게 끼어 이착륙에 필요한 시정이 확보되지 않아 항공기의 결항 및 지연 사태가 오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항 이용객들은 출발 전 항공사에 운항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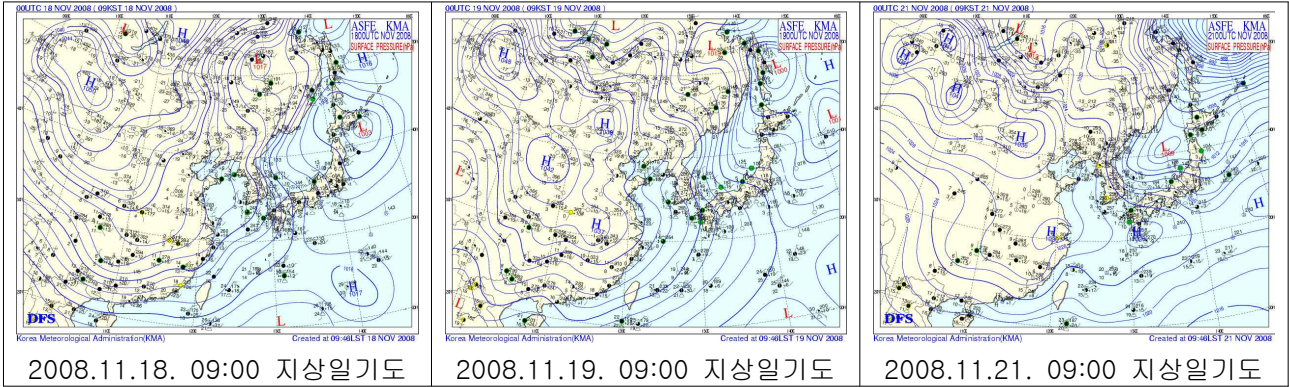
연합뉴스

입력: 2008.11.25 08:43 / 수정: 2008.11.25 오후 4:38:13

2008.11.25. 국제신문 기사

□ 풍랑(2008년 11월 18일 ~ 21일)

발달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강한 북서풍이 불었고, 점차 이동성고기압으로 변질되면서 동해안에는 북동풍으로 인한 높은 물결이 일면서, 경북 감포앞바다에서는 7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2008. 11. 18~21. 파고

날짜	포항 부이	항로표지관리소							
		독도	후포	호미곶	울기	간절곶	가덕도	서이말	소매물도
2008.11.18	2.6m	4~5m	1.5m	2.0m	1.0m	1.0m	2.0m	1.5m	2.5m
2008.11.19	2.2m	4~5m	1.0m	2.5m	1.0m	1.0m	1.5m	1.5m	1.5m
2008.11.20	2.6m	4~5m	1.0m	2.0m	1.0m	1.0m	1.0m	1.0m	2.5m
2008.11.21	2.0m	4~5m	1.0m	2.0m	1.0m	0.5m	1.5m	1.5m	3.0m

○ 풍랑 재해 관련 기사

<p>경북 감포 앞바다서 동영선적 어선 조난...선원 8명 실종</p> <p>2008년 11월 19일 (수) 12:50:18 경주뉴스 webmaster@hdomin.com</p> <p>경북 포항해안경찰서는 19일 오전 2시25분에 경북 경주시 감포 동방 420일 해상에서 항해 중 조난된 동영선적 한일호(79톤 통발어선)의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p> <p>해경은 19일 오전 2시25분에 사고 선박으로 부터 조난신고를 받고 현장에 함정을 급파, 사고 해역에서 전복된 선박을 발견하고 특수구조대원들이 사고 선박에 접근해 생존자 수색작업 중이다.</p> <p>해경은 사고 접수 8시간여만에 수색작업을 하던 중 생존자 2명이 사고 선박 주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조, 1008호함과 1510함으로 옮겨 선원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p> <p>조난신고를 받은 포항해경은 사고 해역에 1500톤급 대함함정 등 구조함정 8대와 특수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해 구조, 수색작업을 하고 있지만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구조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p> <p>사고를 당한 사고 선박은 18일 오전 8시10분에 선장 김충길씨(46.포항)와 선원 등 모두 10명을 태우고 통영항을 출항, 항해중 높은 파도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p> <p>◇사고선박 선원명단</p> <p>△선장 김충길(46 포항 구룡포) △기관장 정삼민(41 통영) △선원 박영구(32 부산) △박재천(42 통영) △황용진(49 진해) △최광모(46 목포) △김동수(31 부산) △이현승(39 포항) △조용대(39 김해) △Hdismunawk(25 인도네시아)</p> <p style="text-align:center">2008. 11. 19. 경남도민일보</p>	<p>경주 앞바다서 어선 전복</p> <p>7명 실종 3명 구조</p> <p>[한겨레] 구대선 기자</p> <p>19일 새벽 2시42분에 경북 경주시 감포읍 동쪽 400일 해상에서 동영선적 대게잡이 통발어선 115한일호(79톤 선장 김충길)가 전복돼 선원 10명 가운데 7명이 실종됐다.</p> <p>사고 발생 9시간여만인 오전 11시30분에 전복된 배 주변에서 밧줄 등을 붙잡고 버티오던 황용진(49.경남 진해시)씨 등 선원 3명은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p> <p>포항해경은 헬기 1대와 경비함정 10여대를 동원해 사고해역에서 배를 발견하고 선원들을 찾는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동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로 파도가 4~5m로 높게 일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경은 기상악화로 어선이 방향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p> <p>◇실종 선원 명단</p> <p>△김충길(46 선장-경북 포항시) △전삼민(41 기관장-경남 통영시) △박영구(32 부산시 사하구) △박재천(42-경남 통영시) △고자우(25 인도네시아인-경남 통영시) △이현승(39-경북 포항시) △조용대(39-경남 김해시)</p> <p>경주/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p> <p style="text-align:center">2008. 11. 19. 한겨레</p>
---	--